

전남광주특별시 산림연구원, 토종다래 산업화 가능성 모색

토종다래 산업활성화 현장토론회 추진계획

일시 2026. 10. 21.(수) 14:00 ~
장소 산림연구원 산림비즈니스센터 2층 대회의실
(전남광주특별특별시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31)
참석자 유관기관 관계자, 산림소득 담당자, 재배임가 등 약 40명

- 산림연구원 : 연구원장, 산림생명자원과장 등 7명
- 국립산림과학원 : 산림특용자원연구과 등 4명
- 공동연구기관 : 장흥군진교류바이오센터, 국립경상대학교, 에이에프지엔컨설팅
- 시·군, 재배임가 : 시·군 소득 담당자, 재배희망 임가, 임업후계자 등

세부일정

시간	소요(분)	세부내용	비고
14:00~14:10	10	행사준비 및 참석자 소개	
14:10~14:20	10	환영사	오득실 원장
14:20~14:40	20	국내 다래 품종 개발 현황 및 재배관리	국립산림과학원 김철우 임업연구사
14:40~15:00	20	다래 유통품질 향상을 위한 수확 후 관리	국립산림과학원 어현지 임업연구사
15:00~15:20	20	토종다래 유전자원 및 연구개발 추진현황	양천은 녹지연구사
15:20~15:30	10	휴식	
15:30~15:50	20	다래 추출물이 갖는 뇌 건강(인지개선) 개선 효과	경상국립대학교 허호진 교수
15:50~16:10	20	토종다래 발효공정 및 산업소재화 연구	장흥군진교류바이오센터 김경재 센터장
16:10~16:30	10	발효 다래 수요처 및 상용화 전략	에이에프지엔컨설팅 강남길 대표
16:30~17:00	30	질의응답 및 시음(가공품)	
17:00~17:40	40	시험포지 견학	

※ 세부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조정될 수 있음

전남광주특별특별시 산림연구원

산림의 가치, 토종다래가 만듭니다!

토종다래 산업활성화 현장토론회 추진계획 포스터

/전남광주특별특별시 제공

오후 1시 30분부터 공연·전시·체험부스 운영

학교박청소년기획단, 축제 준비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 참여

전남광주특별특별시 산림연구원은 오는 21일 산림연구원 산림비즈니스센터에서 토종다래 재배 확대와 가공·산업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토종다래 산업활성화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토론회는 토종다래 품종과 재배기술에 관심 있는 임업인, 재배 희망 임가, 시군 산림소득 담당자,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연구성과와 현장 적용기술을 공유하고, 재배 확대와 가공·산업화 가능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토종다래는 생과 이용뿐 아니라 가공·발효, 기능성 소재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산림소득자원이다. 최근 우수품종과 재배기술, 안정적 생산, 산업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산림연구원은 민관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품종 선택부터 재배관리, 수확 후 관리, 기능성 연구, 가

공과 상용화까지 토종다래 산업 전반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발표 내용은 ▲국내 다래 품종 개발 현황과 재배관리 ▲다래 유통품질 향상을 위한 수확 후 관리 ▲토종다래 유전자원과 연구개발 추진 현황 ▲다래 추출물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 ▲토종다래 발효공정과 산업소재화 연구 ▲발효 다래 수요처와 상용화 전략 등이다.

특히 산림연구원은 현재 보유·관리 중인 토종다래 유전자원과 관련 연구과제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안정적 원물 생산과 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증식·재배기술 연구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질의응답과 다래 가공품 시음, 토종다래 시험포지 현장견학이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품종별 생육 상황과 재배 현장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산림연구원은 토론회를 통해 재배 임가의 현장 애로사항과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산림연구원 산림생명자원과(061-338-4234, 4273)로 하면 된다.

오득실 전남광주특별특별시 산림연구원장은 "이번 현장토론회는 토종다래 재배를 고려하는 임업인부터 실제 재배 임가, 산업 관계자까지 한자리에서 품종·생산·가공·기능성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토종다래에 관심 있는 임업인과 관계자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특별특별시 산림연구원은 산림청 '2026년 산림분야 그린바이오 미래형 가치사슬 기술개발(R&D)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1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 토종다래를 대상으로 한 '산업수요 대응형 산림자원 기반 전임상 연계 발효 그린바이오 소재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기영 기자

현대차-테이트 미술관,

《현대 커미션: 타렉 아투이》개막

현대자동차와 영국 테이트 미술관의 장기 파트너십 일환으로 열리는 《현대 커미션: 타렉 아투이: Hold》展이 이달 13일(화, 현지시간)부터 내년 4월 11일(일)까지 열린다. '현대 커미션(Hyundai

Commission)'은 현대자동차와 테이트 미술관이 2014년부터 이어온 장기 파트너십에 따라 진행되는 테이트 미술관의 기획 전시로, 많은 사람이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테이트 모던

(Tate Modern)의 대규모 전시장인 터바인 홀(Turbine Hall)에서 매년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2015년 아브라함 크루즈비에가스(Abraham Cruzvillegas)를 시작으로 2016년 필립 파레노(Philip Parreno), 2017년 수퍼플렉스(SUPERFLEX), 2018년 타니아 브루게라(Tania Bruguera), 2019년 카라 워커(Kara Walker), 2021년 아니카 이(Anicka Yi), 2022년 세실리아 비쿠냐(Cecilia Vicuña),

2023년 엘 아나추이(El Anatsui), 2024년 이미레(Mire Lee), 2025년 마렛 안네 사라(Máret Anne Sara)에 이어 올해는 타렉 아투이(Tarek Atoui)가 열한 번째 작가로 참여한다.

타렉 아투이는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태어나 현재 프랑스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이자 작곡가다. 세계 여러 지역의 전통 악기와 음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악기를 제작하고, 단순히

귀로 듣는 차원을 넘어 온몸으로 소리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설치 및 퍼포먼스 작업을 선보여 왔다.

이번 현대 커미션에서 타렉 아투이는 테이트 모던 터바인 홀의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 소리가 울리고 퍼지는 특성에 주목했다.

작가가 직접 제작하거나 재해석한 관악기와 타악기, 다양한 조각 작품을 통해 청각뿐만 아니라 공기의 흐름, 진동, 움직임 등 촉

각과 시각으로 확장된 다각각적 경험을 제시했으며, 이는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작동해 공간 전체에 펼쳐지는 '소리 풍경(Sonic Landscape)'을 만들어 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테이트 미술관의 파트너십을 2036년까지 연장하고 예술을 매개로 세대·지역·분야 간 경계를 허물어 동시대가 필요로 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기영 기자

